

< 말라위 6, 7월 선교편지 >

말라위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또 건기때에는 일년 중 가장 쌀쌀한 날씨인 겨울에 해당하는 6,7월입니다.

유가는 지난 달에 6800과차(6200원수준) 조금 떨어 졌어도 세계에서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휘발유5700, 디젤6300과차입니다)

유가가 오르니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이제는 건축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90살이 다 된 대통령은 걸핏하면 남아공으로 치료차 방문합니다.

그동안 마약문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지난달에 대량으로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이 되어 졌습니다.

또 남아공에서의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이만명이 넘는 말라위 현지인들이 추방되어 국경근처 쉼터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 갈 차비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라위로 유입이 되면 각종 범죄와 경제문제가 이슈로 떠오릅니다. 지금 말라위 경제는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공무원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심이 흉흉해지고 모든 관공서 인프라 공사가 되어지고 각종 생계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치원 교육



교육은 그 나라의 희망입니다. 현재 우리 센터의 유치원은 정원이 72명 수준으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학생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영어와 치체와 그리고 어린이 놀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나만보면 쌍가랄라(행복의의미)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느때 인가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즉 행복선교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오면 복음을 가르치고 일반 유치원 교육을 가르치고 또 매주 목요일에는 영양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결석하여도 목요일에는 유난히 출석율이 높습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말라리아 치료약을 도와주고 있어 초창기에 비하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잔디가 깔린 축구장과 놀이터가 있어 어린이 들에게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센터와 유치원이 되게 하옵소서.

- 총회장님의 후원



전 한기총 및 전 세기총 그리고 한국개혁 총회장님 이신 정 총장님과
의 만남을 통해 자립선교 차원에서 큰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장소와 식당으로 필요한 카페테리아를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기때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총장님의 사랑과 후원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는 못했지만 7월 한달 동안 우리 센터의 온 팀
이 하나가 되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달에는 예쁜 카페테
리아가 탄생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정총장님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께 큰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 옥수수 보관



아프리카에서 옥수수는 우리들이 먹는 쌀과 같은 주식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세끼의 식사를 하지만 말라위에서는 보통 두끼를 먹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한끼를 먹지만 제가 말라위에 처음 왔을 당시에는 한끼였지만 요즘은 그래도 두 끼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착 했을 때 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헝거 시즌을 대비하여 옥수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수수 전체를 사지 않고 금년에 8에이커(만평)에서 수확한 90여가마와 별도 구입한 10가마를 합하여 백가마를 보관용 약을 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기운이 3개월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약을 쳐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옥수수 가루인 우파로 구입하여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헝거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나자신이 흐뭇하고 배가 부릅니다.

앞으로의 자력선교를 위해서 2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면 300여명에게 충족할 옥수수와 여력으로 다른 선교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어느 후원자님의 귀한 선물



지난 번 선교편지에서 7월에 유치원 졸업식이 있는데 졸업생이 30여 명이나 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졸업생이 많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귀한 졸업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그동안 졸업선물로 주었던 유니폼과 학생가방 그리고 여러가지 문구류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학생용 가방을 구하기 위해 몇 군데를 다녔지만 마땅한 선물도 없어서 기도하면서 아내인 김홍희 선교사와 따로 구하러 다녔는데 아주 적당하고 좋은 선물을 발견했다고 하여 너무나 기뻐합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Shopwise 가게로 달려가서 어느 가게는 남학생가방만 있었고 또다른 Shopwise 가게에는 여학생 가방만 있어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저희가 생각해도 어린아이와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7월말의 졸업식을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한주간에 두건의 장례식이



말라위에서 가장 흔한 행사가 장례식입니다. 또 장례식때에는 빌리지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곳에서 음식도 얻어 먹을 수 있어 축제처럼 느껴 집니다. 찰리신이라는 재미동포 사업가는 자기가 죽는 날이 이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쨌든 한 건은 한살박이 아이가 갑자기 원인도 알수 없이 세상을 떠났고 또 한 건은 우리 센터에 데려 온 27살의 아이 엄마가 종전에 말라리아를 제때에 치료하지 못해 뇌로 말라리아 균이 퍼져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날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더니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되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말라위 현지인의 평균수명이 우리의 절반 밖에 안되기에 더욱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제목

1. 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고 있는데다 휘발유값이 두배로 폭등하여 생활 모든 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휘발유값이 오르다 보니 모든 생활물가가 급등하여 심지어는 공무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위정자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100채 집짓기 사역에 여러 장애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7월말부터 시작되는 Youth Ministry Training 과 교사 훈련프로그램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름부으심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5. 민경화,김홍희 선교사의 건강과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 지길 기도 요청합니다. 샬롬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